



문블여 장성

발행일 · 2025. 11. 25.(화)

발행처 · 장성군

발행인 · 장성군수 김한중

기획·편집 · 기획실

주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을 영천로 200

전화 · 061-390-7221



축령산 설경

겨울 아침, 축령산 자락에
고운 눈발이 사뽏히 내려앉았다.
깊은 숲을 감싼 설경은
시간의 흐름마저 고요하게 만든다.

임재율 (장성군 황룡면)

건동광산, 장성의 변화를 품다

4~5P

광주MBC 타운홀미팅 특집

6~7P

이장님들께 듣는 2025년

10~11P

내가 사랑하는 장성

18P

장성군 소식지「문블여장성」은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2026년 6월 3일)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2025년 12월 5일부터 2026년 6월 3일까지 발간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봄호와 여름호는 휴간하며, 선거 종료 이후 2026년 가을호부터 정상 발간할 예정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정의 소식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전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의 세 번째 기적, 군민·향우 여러분과 함께 이뤄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장성군수 김한중입니다.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하데,
어느새 시린 겨울이 찾아 왔습니다.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는 독감이 특히 유행한다고 하니,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현안사업 추진 현장을 둘러보던 중에
잠시 짬이 생겨 황룡강을 걸었습니다.

겨울의 황룡강은 성토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10억 송이, 100억 송이씩 피어났던 꽃들이 지고
무척이나 수수해진 황룡강을 걷다가 문득,

‘우리 장성은 항상 맨땅에서 기적을 일궈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 40만 명이 찾으며
큰 성공을 거둔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꽃을 심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료분야 불모지나 다름없는 장성이
온 군민과 향우의 염원을 모아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유치해낸 성과는
전남을 넘어 전국에서 주목했습니다.

앞으로의 모습은 더 기대됩니다.
장성은 지금 ‘세 번째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남면 자풍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김한중 장성군수

“ 우리 손으로 다시 한번 ‘장성의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

우리 군은 폐광인 지하 건동광산에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국가 인공지능·첨단산업의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

지하도시를 방불케 하는 이 공간은 사계절 온도가 일정해서
데이터센터의 발열을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지하수 같은 수자원을 끌어다 냉각수로 쓸 수도 있습니다.

서남해에서 만든 신재생 에너지가 장성 변전소를 거쳐
수도권에 공급될 경우,
전력 문제 역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에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군민과 향우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신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장성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 전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고대하면서,
병오년 새해에도 군민과 향우 여러분 가정에
한없는 평화와 건강이 깃들기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활기 넘치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뜻한 바를 모두 이루는,
힘찬 2026년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장성군수 김한중 올림

건동광산, 장성의 변화를 품다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데이터센터'라는 단어가 일상 속에서도 자주 들린다.
수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이 공간은
이제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을 넘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로 떠오르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장성의 건동광산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 데이터센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유튜브, SNS, 인공지능 서비스. 그 모든 정보의 출발점에는 ‘데이터센터’가 있다. 수많은 컴퓨터 장비가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며 사진, 영상, 음성 등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한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데이터센터는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디지털 산업의 심장인 셈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만큼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대형 컴퓨터 장비인 서버는 그 중심에 있다. 그러나 서버는 열에 매우 민감하다. 높은 온도를 제대로 식히지 못하면 성능이 떨어지고, 시스템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냉각비용이 전체 운영비의 40%를 차지할 만큼, 효율적인 냉각은 데이터센터 운영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냉각 효율이 높고 안정성이 뛰어난 새로운 입지를 찾고 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곳이 바로 폐광이다. 지하 공간을 개조해 데이터센터로 활용하면 사계절 일정하게 서늘한 온도가 유지되어 냉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지하의 차가운 물을 순환시켜 서버의 열을 식히면 별도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냉각 효율이 높고 안전한 환경 덕분에 폐광을 이용한 데이터센터는 세계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와 캔자스주, 노르웨이 레프달 광산에서는 이미 폐광을 개조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했다. 일정한 온도 덕분에 냉각비를 절감하고, 두꺼운 암반층이 재난·재해로부터 시설을 보호한다. 외부 접근이 제한된 구조로 보안성도 높다. 기존 광산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환경 훼손까지 최소화할 수 있다. 폐광을 활용한 데이터센터는 냉각 효율, 보안성, 친환경성을 모두 갖춘 미래형 산업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장성의 미래를 여는 핵심 동력, 건동광산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장성이 주목받고 있다. 장성군은 국내 최초로 폐광을 이용한 데이터센터 조성에 나섰다. 그 현장이 바로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이다. 1973년 가동을 시작해 반세기 동안 장성의 산업을 이끌었던 고려시멘트는 2023년 8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긴 세월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곳이 이제는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건동광산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한다. 총 길이 55km, 깊이 221m로 14층 건물에 해당하는 깊이다. 지하의 일정한 온도와 풍부한 지하수는 데이터센터 운영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여기에 지하수 등 수자원을 냉각 자원으로 활용하면 에너지 효율은 물론 운영 안정성까지 높일 수 있다. 지난 9월, 장성군은 석세스뱅크장성, LS일렉트릭, LS사우타와 15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폐광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국내 첫 사례로, 장성이 산업 전환의 선도 지자체로 주목받는 이유다.

장성군은 이외에도 첨단3지구에 조성 중인 26MW 규모의 파인데이터센터 등 향후 최대 1GW 규모의 대형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멘트 등 제조 중심의 산업이 이끌던 2차산업의 시대가 저물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주도하는 4차산업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장성은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건동광산은 더 이상 멈춰 있는 공간이 아니다. 과거의 산업 기반이 장성의 미래를 이끌 첨단 산업의 무대로 재탄생했다. 장성은 디지털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MBC 타운홀미팅 특집

장성군민이 묻고, 김한중 군수가 답하다

학문을 토론하던 유생들의 강학 공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장성의 내일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민선 8기 3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변화와 과제를 군민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나눈 질문과 답변에는 '성장장성'이 지향하는 방향과 가치가 또렷하게 담겨 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지.

지난 3년은 제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5만 장성 군민 모두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쉽지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확정됐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남 양대 도민체전을 유치해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바쁘고 힘든 시기였지만 군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들이 있었기에 보람이 크다.

조성 중인 첨단3지구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진원면과 남면 일대에서 추진 중인 첨단3지구는 장성의 행정지도를 새롭게 바꿀 대규모 프로젝트다. 파인데이터센터, 국립심뇌혈관센터, 나노기술 제2산업단지 같은 미래먹거리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3,80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학교, 공원, 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함께 조성된다. 주거와 일자리,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기후변화로 농업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장성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생산비 상승과 가격 불안정,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여기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며 농업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장성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소득 작목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2022년부터 내륙 최대 규모의 레몬 재배단지를 조성해 지난해 첫 수확을 거두었고, 올해는 약 100톤의 수확량을 기록했다. 곧 완공될 레몬 전용 착즙시설이 가동되면 국내산 레몬즙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레드향, 천혜향, 백향과, 애플망고 등 아열대 과일 재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 완공되는 아열대작물실증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유망한 아열대 작물을 국내 환경에 맞게 재배하는 기술을 실증하고 산업화 되도록 연구하는 국가기관이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완공 후에는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 확산의 거점이 되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청년 농업인을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 삼계면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청년들의 농업 참여를 촉진하고 총 12.7ha 부지에 공동 육묘장,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가공센터를 마련해 생산·유통·가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형 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2040세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경영 실습, 사후관리 등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귀농귀촌 분야에서는 지난해 전남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과 연어 귀농인 정착 장려금,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체험형 귀농학교와 북이면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농촌협약이 추진 중이라고 들었다. 어떤 사업인지.

농촌협약은 농촌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는 종합 협력 제도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와 총 428억 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장성 군민회관 신축, 삼서면 다목적센터 리모델링, 삼계 실내체육관 건립, 황룡 장성형 키즈카페, 서삼·북이 문화센터 조성 등 생활 인프라와 문화·복지시설을 지역 곳곳에 확충해 장성 전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다.

복지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르신 복지에서는 효도권을 연간 3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그중 일부 금액을 식재료 구입이 가능한 건강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일자리 근무시간은 30시간에서 39시간으로 늘렸으며, 8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연간 14만 4천 원의 택시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경로당에는 입식테이블을 설치하고 냉방기를 교체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전남 최초로 8학기까지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2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초·중·고 신입생에게는 입학축하금을, 청소년에게는 문구점, 안경점, 예체능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한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삼계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대학생 주거비 지원으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장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장성은 천년고찰 백양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축령산 편백숲, 장성호 수변길, 황룡강 지방정원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다. 이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5년을 ‘장성 방문의 해’로 지정해 차 없이도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관광택시,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반값이벤트, 담양과 연계한 ‘장담함께 놀러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장성의 대표 축제인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올해 40만 명이 방문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황룡강 6개 정원, 축령산 자연휴양림, 장성호 제3출렁다리 등 사계절 관광 인프라 확충도 추진 중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은 유물전시관과 집성관을 정비했고, 이를 기반으로 학술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선비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관광문화재단이 출범하면 축제·관광·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 시스템이 완성될 것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생후 6개월부터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돌봐주는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시간당 천 원,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도 돌봄 공백이 생기면 주·야간 모두 이용 가능하다. 지난해 개관한 가족행복센터에는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또 북부권에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이 조성 중이다. 국가철도공단과 유휴 철도 부지를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사업으로, 북부권 보육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외에도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장성의 변화가 있다면.

광주 침단에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3년 7개월 만에 누적 매출 400억 원을 앞두고 있다. 매출의 90%가 농가 소득으로 돌아가는 실질적인 성과다. 내년에는 광주 상무지구 2호점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또 장성은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할 만큼 이용률이 높다. 올해는 남부본소가 새로 문을 열어 군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성장장성! 장성의 미래를 설계하다

주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민선8기 주요성과

민선 8기 장성군은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경제, 복지,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흐름이 서로 연계되며 지역 전반에 변화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제 그 과정과 의미를 분야별 핵심 키워드로 다시 정리해 살펴본다.



산업으로 키우는 성장의 힘



장성군은 대규모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확정되고, 건동광산에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조성이 추진 중이다. 쿠팡 서브허브 유치와 첨단3지구 개발 지원, 나노기술 제2산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은 향후 장성 경제구조 변화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들 사업이 본격화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군은 이러한 변화를 발판 삼아 미래 산업 중심의 균형 있는 지역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동광산 #파인데이터센터 #나노기술제2산단 #국립심뇌혈관센터 #첨단3지구 #쿠팡서브허브유치

삶 속에 스며드는 장성형 복지



‘장성형 복지’는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근무시간 확대, 효도권 증액, 어르신 택시바우처, 청소년수당,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군민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가족행복센터 운영에 더해, 장성을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있다. 또한 2028년에는 백양사역 국공립 키즈레일 어린이집 개원을 통해 북부권 보육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장성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34명으로 전국 4위를 기록하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교육발전특구 운영과 장성 아카데미 30주년을 계기로 평생교육 기반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39시간 #효도권 30만원 #어르신 택시바우처 #청소년수당 #대학생 등록금 지원 #가족행복센터 #24시간 어린이집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

머무는 여행, 다시 찾는 장성



‘2025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택시, 명품숲 투어 어게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상권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확대했다. 특히 담양과 연계한 이벤트 '장담할게 놀러와'를 통해 인근 지역과의 관광 교류를 넓히고, '솔솔한 장성여행' 사업으로 관광객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등 방문 유인을 높였다. 백양사 주차장 전면 무료 개방으로 연간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 관광의 활력도 커졌다. 필암서원의 유물전시관, 집성관 재정비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공간을 조성했고, 전남체전과 장애인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장성의 저력을 보여줬다. 장성군은 축제와 관광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장성 방문의 해 #백양사 주차장 무료 개방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집성관 재개관 #전남체전 #황룡강 가을꽃축제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미래농업으로 여는 새로운 장성



장성군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미래농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계면 일원에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을 추진하며, 레몬 등 아열대 작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득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를 개소해 지역별로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농업인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로컬푸드 첨단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장성한상’,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으로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했다. 장성군은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 연계해 생산·가공·체험이 융합된 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스마트기술과 자동화를 접목해 경쟁력 있는 미래형 농촌으로 나아가고 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국립아열대실증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로컬푸드 직매장 #장성한상 #공공급식지원센터 #레몬착즙시설

균형과 지속가능성으로 향하는 장성의 내일



장성군은 대규모 사업 확보로 지역 균형 발전의 틀을 다져 지역 발전의 방향을 견고히 다져가고 있다. 농업, 주거환경, 생활서비스, 관광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연계해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촌 지역에는 생활 기반과 정착 여건을 보완해 살기 좋은 생활권을 마련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구조와 생산 방식을 도입해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군민이 주로 생활하는 중심 지역에는 보행·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해 일상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여가와 관광 공간은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다. 장성군은 이러한 변화가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 #농촌협약 #귀농귀촌체류형 지원센터 #축령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이장님들께 듣는 2025년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군과 지역을 잇는 이장님께
2025년 한 해를 여쭙었다.

군이 추진한 여러 정책들과 변화들이
주민들의 일상에 어떻게 닿았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앞으로의 장성은
어떤 모습인지를 들어봤다.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살기 좋은 장성을 꿈꾸며”

장성읍 충무3리 **강대운 이장님**

올해 장성 방문의 해를 운영하고 장성의 매력을 알린 것이 인상 깊습니다.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 해주는 이벤트나 담양과 함께한 ‘장담하게 놀러와’ 같은 신선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덕인지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니 지역에 활기도 돌고, 주민들도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흐름이 오래 이어지려면 지역 안에서 소비가 돌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받쳐 줘야 한다고 봅니다. 장성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이 15%로 유지된다면 주민 살림에도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 매출에도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이 진짜 복지다”

진원면 학림2리 **정경조 이장님**

효도권과 택시바우처는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주시구나’ 하는 마음이 전해지니 경로당 분위기에도 따뜻한 기운이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가 오래가려면 마을에서 나온 이야기가 꾸준히 행정에 전달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역할은 이장인 제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결국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성에 살아서
참 좋아요!”

삼계면 화산1리 **김상진 이장님**

삼계면에는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 다목적 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변화들이 차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효도권과 택시바우처, 노인 일자리 확대가 더해지니 복지가 ‘실제로 느껴진다’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쌓인 마음에서 ‘여기 살아서 참 좋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강·치매 관리 같은 복지 지원이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와 일자리도 함께 마련된다면 젊은이들도 ‘장성에서 살아서 좋다!’는 마음이 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장성의 행복을 말하다”

항룡면 옥정2리 **송현숙 이장님**

택시바우처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드린 정책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큼니다. 효도권으로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축제 때 운영되는 꽃길 열차가 구간이 확대되어 항룡시장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축제의 활기가 지역 상권으로 퍼지겠지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항룡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성장장성을 위해”

서삼면 용흥1리 **변능연 이장님**

‘성장장성’이라는 지역 브랜드는 장성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주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가치와 군민들의 자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노령화로 손 갈 데가 많지만, 마을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 하나로 이장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함께한 2025년,
마을과 군이 함께 발전했습니다”

남면 월정3리 **최창규** 이장님

어르신 택시바우처는 특히 마을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복지 정책입니다. 이동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내년엔 지원 대상이 7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더 많은 분들이 불편을 덜 수 있겠지요.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합니다. 군과 주민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 행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씩
성장하는 장성”

동화면 송계2리 **안조일** 이장님

진동광산 폐광부지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동화면 주민들에게도 큰 기대를 주는 변화였습니다. 오랫동안 멈춰 있던 공간이 앞으로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미래산업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장의 역할은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들이 마을의 삶에 스며들도록 연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씩 해소되고 마을이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성장장성”

삼서면 유평1리 **성석만** 이장님

이장을 하다 보면 군 정책이 주민들의 하루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효도권 확대와 택시바우처는 어르신들 이동과 생활에 실제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니 읍면 단위 맞춤형 복지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방문 복지나 돌봄 지원이 한 발 더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저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군정,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북일면 성산2리 **오재곤** 이장님

진동광산 부지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 지역에도 숨통이 트이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생기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군에서 주민들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는 움직임이 많아져, 행정이 예전보다 가까워졌다는 느낌입니다. 앞으로는 부서마다 맡은 일을 책임 있게 이어갈 수 있는 체계가 잘 잡혀, 일이 중간에서 끊기지 않고 군민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하나하나 쌓여 지역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북이면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북이면 모현1리 **유명환** 이장님

요즘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고맙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을이 오래되다 보면 손볼 곳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이 천천히 정리되는 모습이 보여 좋습니다. 앞으로는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이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삶에 바로 도움이 되는, 현장과 가까운 정책이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행복하니
이장도 행복합니다”

북하면 약수2리 **강경화** 이장님

백암산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은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도 주차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편하게 다녀올 수 있으니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객도 늘고, 식당·카페 같은 상점들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며 지역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무료’라는 혜택을 넘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실질적인 이익을 함께 체감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을에 웃음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때 이장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장성 먹거리 정책, ‘밀라노 협약상’ 거버넌스 부문 특별상 수상

공공급식 공급 체계 확립, 먹거리위원회 운영 성과 등 높이 평가



지난 10월, 장성군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5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F) 글로벌 포럼」에서 거버넌스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으로 지역 내 공공급식 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학교·군부대·농협·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먹거리위원회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장성군은 2023년 MUFPF에 가입한 이후 초청 워크숍과 아시아·태평양 포럼 등 국제 행사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사례를 공유해 왔다. 시상식 현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와 디지털 유통 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운영 사례도 발표했다.

40만여 방문객과 함께한 9일간의 가을꽃축제, 성황리 폐막

J-라이트런, 전군 노래자랑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가득차



지난 10월, 9일간 이어진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40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는 코스모스, 황화 코스모스, 백일홍 등 가을꽃과 핑크물리, 팜파스 그라스 등이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조경과 함께 새로운 감각의 프로그램과 현장 참여 중심의 구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J-라이트런’은 좀비와 저승사자가 등장하는 미션형 야간 러닝 이벤트로, 500명 모집에 1500명 이상이 몰리며 뜨거운 인기를 끌었다. 마지막 날 열린 ‘전군노래자랑-시크릿 오디션’은 참가자를 스크린으로 가린 채 노래 실력만으로 겨루는 방식으로 관객의 몰입을 높였다.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전남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 우수상 수상

친환경성, 조화성, 창의성, 실용성 등 높은 평가 받아



지난 10월, 황미르랜드 어린이 친환경 테마공원이 「제10회 전남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황미르랜드 테마공원은 친환경성, 조화성, 창의성, 실용성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환경친화적 소재를 활용한 놀이시설과 자연 경관의 매력을 살린 조경 설계다. 황룡강 하중도에 조성된 이 공원은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황톳길 맨발 산책로를 갖추고 있으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동선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디자인이 어우러져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집성관 재개관

디지털 전시 공간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지난 10월, 필암서원 내 유물전시관과 집성관이 수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재개관했다. 유물전시관의 경우 딱딱한 판넬 형식의 전시와 설명이 주를 이루었던 이전과는 달리 영상, 음향 미디어 파사드, 이동형 터치 스크린을 통한 체험형 전시로 필암서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집성관은 강당과 공연장, 체험마당, 도서관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군은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필암서원을 선비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군민이 주인되는 자치의정! 소통하고 신뢰받는 장성군의회

장성군의회, 독립청사 개청 후 첫 회의 개최



장성군의회가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7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7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주요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을 포함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3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정에 대한 질문내용을 의원별로 살펴보면 △오원석 부의장은

‘성장장성 브랜드 활성화 방안’ 등 2건, △나철원 의원은 ‘더본 코리아 사업 분야 대체 방안 검토’ 등 3건, △서춘경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등 4건, △김연수 의원은 ‘건동광산 데이터센터 조성사업 향후 계획’ 등 4건, △최미화 의원은 ‘우리군 주요 관광지의 적극적 활용과 방치된 관광자원의 재정비를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 4건에 대해 질문했다.

장성군의회, 신청사 개청식 열고 새로운 도약 다짐

전남 장성군의회는 11월 19일,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다. 이번 개청식은 1991년 4월 15일 제1대 의회 개원 이후 34년 동안 장성군 청사를 사용해 오다가, 바로 옆 신축한 청사로 이전한 것을 기념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장성군의회 신청사(장성읍 매화7길 37)는 총면적 1,935㎡, 지상 3층 규모로 지난 2024년 7월 착공해 올해 9월 완공했다. 지상 1층은 주차장, 2층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3층은 의원실과 의회사무과가 자리하고 있다.





장성읍

황금빛 가을을 물들인 장성 영천 막걸리 축제

지난 10월, (구)매일시장 일원에서 ‘한 모금에 담긴, 장성의 시간’을 주제로 ‘제2회 장성 영천 막걸리 축제’가 열렸다.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와 연계한 이번 축제는 막걸리 시음과 합주 건배식, 비누 만들기 체험, 버스킹 디제잉 공연 등 즐길거리가 다양해 1500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진원면

어르신들과 따뜻한 하루, 진원면 사랑나눔 행사 개최

11월 초, 진원면 동부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16회 진원면 사랑나눔 행사’가 개최됐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프란치스코 집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지역 어르신과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하고 뜻깊은 행사다. 이날 100여 명의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공연, 민속행사, 건강체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남면

함께 웃고 함께 빛은 남면의 첫 축제, 단감이랑 안평미(미)랑

11월 초, 남면에서 ‘제1회 단감이랑 안평미(미)랑 축제’가 개최됐다. 남면의 대표 농산물인 황토단감과 안평미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지역의 자부심을 나누고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벼짚 새끼꼬기, 단감 길게 깎기, 떡메치기 등 프로그램과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큰 호응을 얻었다.



동화면

이웃사랑 실천하는 동화면 주민자치위원회 봉사단

동화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화면 20개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칼갈이 봉사를 진행했다. 마을을 직접 방문해 봉사를 펼친 동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날이 무더진 칼과 가위를 갈기 어려운 어르신께 손수 칼을 갈아드려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을 선보여 봉사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삼서면

2025년 한가위 태청골 가요제 성황리에 개최

지난 10월, 삼서면에서 ‘2025 한가위 태청골 가요제’가 열렸다. 추석연휴에 고향을 찾은 향우들과 삼서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노래자랑이 이어졌다. 농약살포기, 자전거 등 다양한 경품 추첨으로 흥겨움을 끌어올리고 가을밤을 수놓은 불꽃쇼로 대미를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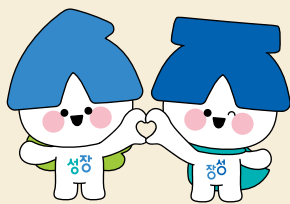
삼계면

가을 정취 물씬, 꽃향기 가득한삼계면으로 놀러오세요!

삼계면 주산리, 상도리 일원에 가을꽃이 만발해 주민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오랫동안 유희지와 영농폐기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방치됐던 주산리와 상도리 부지를 지난 봄, 주민들이 직접 땅을 개간해 꽃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등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이야기



황룡면

한가위 달빛 아래 노래로 물든 황룡면

지난 10월, 황룡강변 용담에서 면민과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함께한 ‘한가위 달빛 노래자랑’이 열렸다. 노래자랑 외에도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주막 운영, 경품 추첨, 지역 유명 인사들의 깜짝 무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황룡면에서는 이번 행사의 수익금으로 어르신 효도 관광 등 따뜻한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삼면

제25회 서삼면민의 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된 명절

지난 10월, 서삼초등학교에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25회 서삼면민의 날 행사’가 열렸다. 기념식과 한마당 큰잔치 노래자랑, 경품추첨, 향토 먹거리 장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으로 주민들이 훈훈한 정을 나누며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북일면

세대가 함께 웃고 함께 즐긴 하루, 북일 효사랑 축제

11월 초, 500여 명의 주민과 향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북일 효사랑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문을 연 다목적 센터 준공식과 함께 진행됐다. 가훈써주기, 건강체크관,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온(溫)가족 노래자랑’이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효사랑대상, 화목가족상 등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시상도 이어져 주민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북이면

풍년의 맛과 멋을 즐기는 북이면 삼남대로 거리예술 한마당 개최

지난 10월, 북이면 사거리 일원에서 ‘제2회 북이면 삼남대로 거리예술 한마당 축제’가 열렸다. 백양사역부터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를 지나 사거리 전통시장 주차장까지 이어진 거리행진을 시작으로 창극, 시극 공연, 대금연주, 댄스공연 등 풍성한 공연들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또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풍년놀이 한마당, 치맥 파티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북하면

단풍보다 고운 웃음, 애기단풍과 함께하는 북하면민 한마당 축제

11월 초, 백양사 쌍계루 앞에서 ‘제2회 애기단풍과 함께하는 북하면민 한마당 축제’가 열렸다. 축하공연과 노래자랑을 시작으로 곱감썰기, 단감썰기 게임, 인절미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장터까지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우리 손으로 만드는 축제’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상큼함을 머금은 노란 열매

새콤한 맛과 향긋한 향, 누구나 사랑하는 과일 레몬

장성에서 자라 더욱 특별합니다

끝이 뾰족한 타원형의 과실은 처음에는 짙은 녹색을 띠다가 점차 밝은 노란빛으로 변하며 완전히 익기 전 껍질이 녹색일 때 수확하여 숙성시킨다. 특유의 향긋한 향과 상큼한 신맛 덕분에 주스, 차, 디저트, 메인요리 등 다양한 조리에도 활용되고 과육뿐 아니라 껍질까지 쓰인다. 그야말로 버릴 것 하나 없는 ‘스타 재료’다.

레몬은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노화 예방과 혈관 건강에 유익하다. 살균·수렴 작용 덕분에 구강 청결과 목감기 예방에도 쓰인다.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효능도 있으나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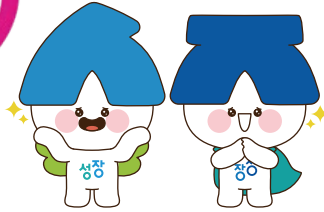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제주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는데, 장성군은 2022년부터 레몬을 아열대 신소득 작목으로 선택해 재배에 나섰다. 내륙 최대 규모의 재배단지를 조성해 지난해에는 삼서면에서 첫 수확에 성공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한 레몬 전용 착즙 시설이 문을 열 예정이다. 앞으로는 레몬즙 시장까지 장성이 선점하게 되는 셈이다.

또 장성군은 ‘장성 레몬’의 이름값을 지켜내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도 추진 중이다. 이제 ‘장성 레몬’은 수입산과 다른, 믿을 수 있는 국산 레몬으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음을 잇는 행복한 기부

장성고향사랑 기부제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
돌려받는 행복!



고향사랑e음



장성군답레폼

기부자

개인 누구나
(법인, 단체 불가)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제외 모든 지자체

기부한도

개인당
연간 2,000만원

기부혜택

(답 레 폼) 기부금의 30% 이내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공제

※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장성의 성장을 향한 기부 릴레이



변수진 (북일면 출신)

“고향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실천으로
 옮겨보자는 어머니의 말씀이 큰 계기가 됐다.
작지만 뜻깊은 나눔이라 뿌듯하다.”



김지애 (북일면 출신)

“23년도에 두 언니가 먼저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보냈고, 올해는 막내인 제가 함께해 가족 모두가
고향을 향한 뜻깊은 마음을 이어가게 됐다.”

향우 소식

변동수 성업플러스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수상

11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제품 안전의 날' 행사에서 장성 출신 변동수 성업플러스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변 대표는 소규모 기업임에도 사고 예방 중심의 개발체계를 구축하고 다단계 품질 점검을 도입해 불량률 0.2%를 유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총무과 자치분권팀 061-390-7239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재)장성장학회 장학금 기탁 소식



(2025. 11. 기준)

이름	기부액(원)	비고
대아농수산	3,000,000	
이덕진	50,000	매월

이름	기부액(원)	비고
익명	5,000,000	
정용연	50,000	매월

☎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 061-390-8572

내가 사랑하는 장성

독자 여러분이 직접 담은 특별한 순간을 소개합니다.

지난 11월 공식 SNS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장성’ 이벤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선정작 10작품을 공개합니다.

강수현(광주광역시 광산구)

📍 백양사



고지영(장성군 황룡면)

📍 황룡강변



김다나(장성군 동화면) 📍 장성호 수변길



이혜숙(서울특별시)

📍 백양사



김수윤(광주광역시 서구) 📍 황룡강변



박정환(장성군 동화면)

📍 병풍산



이지혜(광주광역시 북구) 📍 황룡강변



천경화(경기도 오산시)

📍 황룡강변



최규리(광주광역시 광산구)

📍 황룡강변



황지혜(장성군 장성읍) 📍 황룡강변



2025
농림어업
총조사



조사목적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 등 개별 특성 파악과 농림어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농림어업 표본조사의 표본틀로 사용

법적근거

통계법 제5조의4 및 제17조 제1항*,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4, 농림어업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36호)

조사기간

2025. 12. 2.(화) ~ 12. 22.(월)
* 인터넷 : 2025. 11. 20.(목) ~ 12. 10.(수)

조사대상

12월 1일 0시 기준 농림어가, 행정리

조사항목

4종(농림가, 해수면어가, 내수면어가, 지역) 조사표, 133개 항목

조사방법

대면조사(태블릿PC), 비대면조사(종이조사표, 인터넷조사) 병행

2025년 2학기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5. 11. 17.(월) ~ 12. 12.(금)

대 상

주소지 부모 모두(보호자)가 공고일(25. 11. 10.) 현재 3년이상 장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정의 30세 이하 대학생

성 적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백분위 70점(C학점) 이상 취득

필 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지원금액

200만원 한도 내 등록금 실 납부액 (1인 최대 8학기)

지급방법

학생 계좌로 입금

문 의

장성군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
☎ 061-390-8572

장성군
병원동행서비스로
어르신 건강길을
함께 걸어요!



대 상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동행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병원 이동 및 동행 지원

이 용 료

• 관내 : 4,000원, 관외 : 10,000원 / 3시간 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무료

이용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수행기관(영락양로원 ☎061-395-7880)

연 최대 36만원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대 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장성군 주소지)

신청장소

장성군 치매안심센터(장성읍 성산)

내 용

치매 진료비·약제비 월 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소급 지원 불가)

구비서류

소견서, 통장사본, 신분증, 약처방전, 세부내역산정서,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제외대상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

▶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직장 102,613 지역 22,380	직장 168,410 지역 105,787	직장 215,933 지역 151,146	직장 261,360 지역 208,471	직장 302,462 지역 260,307	직장 354,964 지역 320,449
	직장 118,821 지역 46,072	직장 196,117 지역 133,680	직장 252,203 지역 196,416	직장 311,031 지역 269,976	직장 354,964 지역 320,449	직장 407,092 지역 382,076

문의처 ☎ 390-7164~7165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심폐소생술?
여기서
배울 수 있다고!!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

기 간

연중

장 소

장성군 보건소 심폐소생술 체험관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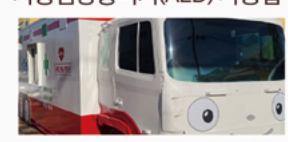
군민 누구나 ※학교, 가족 등 그룹 위주

운영방법

사전예약제(월,수,금)

내 용

• 심폐소생술의 필요성과 응급처치 방법 안내
• CPR 교육용 혈형 표시 애니 통해 실시간 피드백 훈련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및 안전 사항 안내





온 겨울, 인파가 찾아온다고?
한랭질환
조심하세요!



한랭질환이란?

❖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 대표적인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있음

한랭질환 발현시 응급조치

1. 신속히 병원으로 가거나 빠르게 119에 신고합니다.

2. 정온 옷을 벗기고 담요나 침낭을 감싸줍니다.

3. 거드름이 배 위에 찬벽이나 더운 물통 등을 듭니다.

4.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음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의식이 없는 경우 주의합니다.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1.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균형있는 영양섭취

2. 실내환경 실내온도 18도,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3.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실외기, 추위경우 예외활동 자제)

4. 외출 시 따뜻한 옷 입기 (장갑, 모자, 마스크 착용)

주의 사항

기저질환으로 복용하는 약이 한랭질환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 의사와 상의하여 주의사항 숙지

미리 Merry Christmas

트리에 소원을 걸어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
- 이정현 -

새해엔 하고 싶은 일에
용기 내서 도전하는
내가 되길 바라요
- 김용호 -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길
- 김영선 -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제가 되길 소원합니다
- 김지연 -

반짝이는 트리와
달콤한 캐럴 소리 속에서
모두의 마음이 따뜻하게
물들길 바라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그리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 이자연 -

작은
행복들을
자주 느끼기
- 김원석 -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 최명희 -

어른들에게도
산타할아버지가 깜짝
선물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필섭 -

내년에는
연애하고 싶어요
- 이영섭 -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애내의 임신 소식을
들려달라는 소원을 받고 싶습니다
예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
정말 바르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키워겠습니다
- 남상설 -

저 포함 소상공인
모두 경기활성화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 신양현 -

동생이 림프종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힘든 과정 다 이겨내서 암 덩어리
깨끗이 없어지고 다시 건강해지기를
간절하게 빌어봅니다
- 김경아 -

차가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바라요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
- 진홍옥 -

우리가족 첫 해외여행
갈수 있도록산타할아버지가
도와주세요!
- 김명수 -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 송하나 -

지난 11월 공식 SNS를 통해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트리에 소원을 걸어요' 이벤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당첨자 소원 중 일부를 소식지에 게재합니다.

장성군과 소통해요!



인스타그램
@jangseong_official



페이스북
@yellowcity.js



유튜브
@happyjangseong



블로그
@yellowcity-js



카카오스토리
@yellowcity-js



카카오톡
@yellowcity-js